

## 9주차

# 주시경의 국어 사상을 후대에 전하리라 - 최현배

### 주차별 차시

	차시명
1차시	최현배의 생애와 성과
2차시	《우리말본》의 국어학적 의의
3차시	《우리말본》(1)
4차시	《우리말본》(2)
5차시	최현배의 사상과 문법관
6차시	최현배의 역사 연구와 어문 정책

---

## 1차시 최현배의 생애와 성과

---

### 학습 목표

---

- 최현배의 생애와 성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01. 최현배의 생애와 성과

- 최현배(1894~1970)



- 주시경의 국어 사상을 국어 정책으로 실현한 한국의 근대 문법가
- 이극로, 이희승, 신명균 등과 <조선어학회>를 이끌었으며 정인승, 정태진 등을 <조선어학회>의 사전 편찬 사업에 참여시켰음
-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음
- 광복 이후 미군정청 문교부 편수국장으로 재직하며 국어 재건 정책을 이끌었음
- <조선어학회>의 후신(後身)인 <한글학회>를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수많은 업적과 성과를

남김

- 호는 외솔, 경상남도 울산 출신
- 서당에서 한문을 배운 뒤 고향의 일신학교에서 신식 교육을 받고 1910년 상경하여 한성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915년 졸업하였음
- 그 해 일본 히로시마고등사범학교 문과에 입학하여 1919년 졸업, 1922년 4월에 일본 경도제국대학(京都帝國大學) 문학부 철학과에 입학, 교육학을 전공하여 <페스탈로치의 교육학설>이라는 논문을 쓰고 졸업하였고 동 대학원에서 수학하였음
- 1926년 연희전문학교(지금의 연세대학교) 교수로 취임하여 1938년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파면당할 때까지 재직하였음
- 1941년 연희전문학교에 도서관 직원으로 복직하였으나, 그해 10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사임, 1945년 광복까지 4년 간의 옥고를 치렀음
- 광복 이후 문교부(지금의 교육부) 편수국장에 두 차례 재직하였음
- 1954년 연세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였고,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에 뽑힘
- 1949년 <한글학회> 이사장에 취임하여 20년 간 <한글학회>를 이끌었음
- 1949년 한글전용촉진회 위원장, 1957년부터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이사·부회장·대표이사 등으로 활동하였음

<울산에 있는 외솔기념관 전경>



- 최현배의 국어학 연구는 1910년 조선어강습원에서 주시경의 가르침을 받으며 시작되었다고 함

- 그의 업적은 《우리말본》과 《한글갈》로 집약됨
- 《우리말본》은 1929년 《우리말본 첫째매 소리갈》에 이어 1937년 초판 완본이 출판되었음
- 이 책은 주시경 이래의 문법 연구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20세기 전반기의 문법 연구를 집대성한 저술임
- 전반적인 체계는 《중등 조선말본》(1934)에 이미 나타나 있었으나, 이를 보완하고 확대한 것임
- 《우리말본》은 자료에 관한 설명이 충실하고, 설명과 체계 등의 논리정연함이 탁월한 업적으로 평가됨
- 또 다른 업적으로 《한글갈》(1941)은 한글 연구의 체계화를 추구한 책으로, 역사편과 이론편으로 구성되어 있음
  - ✓ 역사편 : 한글 제정의 동기와 경위, 한글 문헌에 대한 해설, 한글 연구의 역사 등
  - ✓ 이론편 : 한글 창제 이후 없어진 글자를 주로 다루어서 그 음가를 추정해낸 내용
- 국어 정책의 수립과 국어 운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그에 대한 이론적 투쟁을 정력적으로 전개하였음
- 《글자의 혁명》(1947), 《한글의 투쟁》(1958), 《한글 가로글씨 독본》(1968), 《고희 기념 논문집》(1968), 《한글만 쓰기의 주장》(1970) 등을 통해 한글전용과 풀어쓰기의 이론을 발표하였음
- 국어 정화를 주장하면서 일본어의 잔재를 정리하기 위한 ‘우리말 도로 찾기 운동’을 전개하였음
- 문교부 편수국장 재직 시절, 국어 정책에 관한 주장을 교과서에 반영함
- 현행 각종 교과서에서 한글만으로 가르치는 체제를 확립하였음
- 《조선민족 갱생의 도》(1930)에는 일생을 일관한 애국·애족의 사상이 뚜렷이 나타남
  - ✓ 우리 민족의 성격상의 결함과 질병을 진단하여 그 역사적인 원인을 구명
  - ✓ 민족이 되살아날 원리를 말하고 이어 그 원리를 실천하고 노력할 것을 역설한 책
- 《조선민족 갱생의 도》(1930)
  - ✓ 1926년 《동아일보》에 66회에 걸쳐 연재한 글을 1930년 단행본으로 간행. 일관된 정신은 ‘민족 사랑’

- ✓ 제1장 ‘민족적 질병의 진찰’ : 의지박약, 용기 부족, 도덕성 타락, 정치·경제적 파멸 등 우리 민족의 병폐 10가지를 제시
  - ✓ 제2장 ‘민족적 쇠약증의 원인’ : 역사적 문제, 자각 없는 교육, 한자의 해독, 양반계급의 횡포, 일상생활의 비효율과 미신의 성행 등에서 원인을 찾고 있음
  - ✓ 제3장 ‘민족적 갱생의 원리’ : 민족적 생활의 이상을 추구하고 이를 확립하려 했음. 민족적 생기를 진작하고, 민족적 이상을 수립하며, 민족의 시대적 이상을 파악할 것을 주장. 민족갱생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
  - ✓ 제4장 ‘민족적 갱생의 노력’ : 신교육의 정신 함양, 계몽운동, 체육 장려, 경제 진흥, 생활방식 개선, 민족문화 발양 등 강조
- 그의 정신은 광복 이후에 확대, 발전되어 《나라 사랑의 길》(1958)과 《나라 건지는 교육》(1963)으로 이어짐
  -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을 고취하여 부강한 자유국가와 훌륭한 자주민족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음
  - 국어 문법 체계를 확립한 국어학자로서, 한글 운동의 이론가이며 실천가로서, 민족의 중흥과 민주국가 건설을 외친 교육자로서 남긴 업적과 공로가 큼
  - 그의 학문과 유지는 <한글학회>를 중심으로 한 학자들에 의하여 계승되고 있고, <외솔회> 등을 통해 국학연구와 국어 운동에 뛰어난 사람에게 ‘외솔상’을 시상함으로써 그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음

“관비 유학의 의무로서 관립 고등보통학교에 복무해야 했는데, 병 청탁으로 회피하고 (중략) 동래군의 사립 동래고등보통학교에 취직하여 한두 해 동안은 여기서 우리말을 연구하면서 가르쳤으니, 나의 우리말의 초고가 맨 처음 여기서 비롯되었다. (중략) 내가 대학시대에도 우리말 연구의 뜻을 버린 일은 없었다. 언어학에 관한 강의를 해마다 들었으며, 대학원에 들어간 해의 봄에 먼저 옛날 동래에서 비롯했던 ‘우리말’의 짓기를 다시 시작하여 그해 가을에 이르러 ‘소리갈’을 대강 끝내었던 것이다.”

- 최현배는 우리말을 가르치면서 문법서를 구상했음
- 유학 중에 일본 문법학 체계를 수용해 조선어 문법 연구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려 했으며, 이는 《우리말본》으로 결실을 맺게 됨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최현배(崔鉉培))
- 외솔기념관홈페이지, <https://www.junggu.ulsan.kr/oesol>

-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encykorea.aks.ac.kr/Contents/GetImage?id=090bdf8c-1747-4a9c-a980-2ceef37dfa3b&w=260  
&h=260&fit=w&clip=1](http://encykorea.aks.ac.kr/Contents/GetImage?id=090bdf8c-1747-4a9c-a980-2ceef37dfa3b&w=260&h=260&fit=w&clip=1)

---

## 2차시 《우리말본》의 국어학적 의의

---

### 학습 목표

---

- 《우리말본》의 국어학적 의의를 열거할 수 있다.

#### 01. 《우리말본》의 국어학적 의의

- 《우리말본》의 시작
  - 최현배는 일본 유학을 통해 일본 문법학을 경험하여 조선어 문법서를 기획하게 된 것으로 보임
  - 국어학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말본》이 야마다 요시오(山田孝雄)의 《일본문법강의》(1922)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 있음
  - 최현배가 자신의 문법론에 영향을 준 문법서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것은 문제라 할 수 있지만, 한국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여 한국어 문법을 체계화한 것은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음
  - 《우리말본》에서 야마다 문법을 전적으로 수용한 부분은 원론적인 설명이나 보충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임
- 《우리말본》의 특징과 의의
  - 《우리말본》은 최현배의 우리말 연구와 교육 경험이 축적된 결과물임
  - 1920년 문법서를 구상한 후 ‘소리갈’에 해당되는 첫째 매가 1929년에 연희전문 출판부에서 출판되었음
  - 이어서 《조선어 품사분류론》(1930)과 《조선중등본》(1934)이 나온 후 1937년 《우리말본》이 완간되었음
  - 《우리말본》이 완간되기까지 17년 동안 최현배는 한국어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했고 이를 귀납적으로 체계화하여 한 권의 문법서로 엮은 것임

역사적·학문적 의의 “풍부한 자료, 상세한 설명, 논리정연함”

“외솔최현배선생은 내가 대학생 시절부터 뵈던 13년 연장의 선배이시다. 그때가 마침 연희전문학교에 부임하신 때로, 학생 시절이라서 모두 그분의 강의 내용을 보았으면 했다. 왜냐하면 국어학이 새로 발족한 직후라서 자료 한 장이 값 있었기 때문인데, 외솔선생이 매시간 문법 교재의 프린트가 다량으로 학생들에게 분배되었던 것이 회상된다.”

이승녕의 회고 중에서

- 최현배의 문법론은 <조선어의 품사분류론>(1930)에서 그 체계가 드러났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말본》이 품사 분류 체계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부분은 이전 문법서와 차별되는 지점임
- 이런 점에서 최현배 역시 정열모와 같이 문법 연구의 실천성을 지향하되, 과학적 체계화를 통해 문법의 설명력을 높이고자 했음을 알 수 있음
- 정열모의 문법론과 비교할 때 최현배 문법론의 특징은 이론적 체계만큼 그것의 실용성을 고려했다는 점
- 《우리말본》에서는 조사와 어미를 단어로 본 주시경의 문법과 달리 조사는 단어로 보되 어미는 단어에서 제외
- 정열모의 비판 - “토 곧 조사를 단어론에서는 한 말로 보면서 문장론에 가서는 한 말로 보지 않으므로 한 말의 개념이 단어론과 문장에서 일관되지 못하다”
- 조사와 어미를 이론적 근거 없이 다르게 처리하는 문제

“요컨대 씨가름은 사람의 말을 연구하는 편의상으로 하는 것이니, 아예부터 일정불변하는 일반적 표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나라말의 바탕(性質)의 다름을 따라 저절로 상위(相違)가 생기는 것은 정(定)한 이체(理體)이다. 다만 가장 필요한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그 말의 본래의 바탕에 맞으며, 따라 그 말의 이해와 실용에 가장 편리한 가름(分類)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최현배의 품사 분류론
  - ✓ (품사는) “구실을 주장으로 삼고, 그에 따르는 꼴[形式]과 뜻을 붙임으로 삼아서, 이 세 가지가 서로 관계하는 상태를 표준으로 삼아 결정하되 이해와 실용에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분류해야”

- 최현배의 품사 분류의 특징은 ‘토(조사)’를 독립 품사로 보는 데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남
- ‘토’를 독립 품사로 본 것은 풀어쓰기 문제, 일반 민중의 언어 의식 등을 고려한 결정임을 밝히고 있음

풀어쓰기	'ㅈㅏ ㅏㅡㅏ' → '자는', '잔은' 등의 여러 가지로 이해되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
일반 민중의 언어 의식	일반인들이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한 낱말로 의식하지만 체언은 조사와 독립적으로 의식함

- 풀어쓰기가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학교문법은 일반 언중의 언어 의식을 고려한 분류 방식에 따라 조사를 독립 품사로 설정하였음
- 문법 체계의 보급과 교육
  - 최현배는 자신이 세운 문법 체계를 중등학교 조선어 및 민족어 교육을 통하여 꾸준히 보급해 나갔음
  - 《중등조선말본》(1934)
    - ✓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간행
    - ✓ 만주에까지 보급되어 활용되었음
  - 《중등조선말본》은 1936년 일부 개편되고 《우리말본》이 나온 이후 개정판이 나왔음
  - 개정판은 해방 이후에는 중등학교 문법 교과서로 사용되었음
  - 최현배의 문법 체계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거의 그대로 응용되었고, 《큰사전》과 학교문법 등 국어 생활과 국어 교육에 큰 영향을 미쳐 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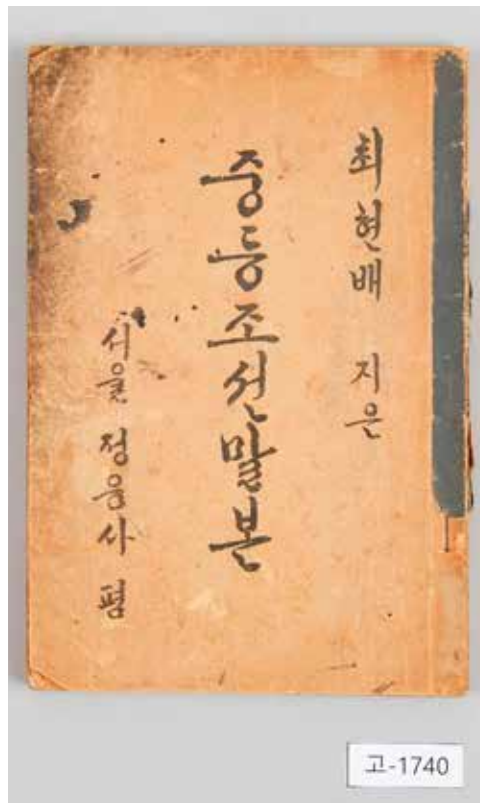
## 3차시 《우리말본》(1)

### 학습 목표

- 《우리말본》의 배경을 분석할 수 있다.

#### 01. 《우리말본》에 영향을 준 최현배의 문법서: 《중등조선말본》

- 《중등조선말본》



- 《중등조선말본》은 일제강점기~광복 직후 학교 교육에서의 문법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하였음
- 2016년 현행 학교 문법 교과서에도 기초를 놓은 책이라는 평가
- 본래 최현배가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낸 책

- 당시 한반도와 만주 등 해외에서도 널리 사용된 문법 교과서
- 《중등조선말본》은 문법의 용어를 고유어로 새로 지어서 사용하였음
- 이전의 우리말 연구 방식은 분석적이었으나 이 책은 절충적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음
  - ✓ 종전의 방식은 조사와 어미를 단어로 보는 분석적 입장(주시경 등)
  - ✓ 이 책에서는 조사만 단어로 보고 어미는 단어로 보지 않는 절충식
  - ✓ 최현배 자신이 쓴 <조선어의 품사분류론>(1930)을 바탕으로 함
- 《중등조선말본》(1934)은 처음 나온 지 5개월 만에 재판할 정도로 급속도로 퍼져 나갔으며, 1938년 6월에 제4판을 찍으면서 개정판을 발행하였음
- 광복 후 1945년에 개정판을 바탕으로 정음사에서 다시 간행하여 중등학교의 문법 교과서로 널리 사용되었음
- 현행 학교 문법에서 조사를 단어로 보는 절충식이 정립된 것은 이 책에 근거한 것임

● 《중등조선말본》의 구성



- 이 중 품사론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음 (전체의 3/4이상)
  - 이름씨[名詞], 대이름씨[代名詞], 셈씨[數詞], 움죽씨[動詞], 어똥씨[形容詞], 잡음씨[指定詞], 어똥씨[冠形詞], 어찌씨[副詞], 느낌씨[感歎詞], 토씨[助詞]의 10개 품사를 설정
  - 특히 토씨[조사]와 잡음씨[지정사] ‘이다’를 품사로 인정한 것이 특징
- 《중등조선말본》에서 《우리말본》으로
- 최현배는 주시경의 가르침을 받았음
  - 주시경의 학문은 민족주의 입장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그의 제자들에게도 이어졌음
  - 이 책은 이러한 정신에 그 학문 기반을 두고 있으며, 《우리말본》도 마찬가지임
  - 주시경, 김두봉 등 선대의 연구는 분석적 체계이지만 《우리말본》은 종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분석적 체계

조사와 어미를 단어로 보고 품사 체계에 반영

종합적 체계

조사와 어미를 단어로 보지 않고 단어를 이루는 일부로 보며, 품사 체계에 반영하지 않음

- 또한 《우리말본》은 서술에 그 전까지와 달리 큰 진전을 보이면서 처음으로 국어의 문법 체계를 대성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음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우리말본)

## 4차시 《우리말본》(2)

### 학습 목표

- 《우리말본》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01. 《우리말본》

- 《우리말본》



- 근대 문법가 최현배가 국어의 문법 체계를 집대성하여 1937년에 간행한 국어문법서
- 1937년에 초판이 나왔고 이후 여러 차례 개정판이 나왔음
- 《우리말본》의 구성과 내용
  - 소리갈
    - ✓ 1929년에 따로 펴낸 《소리갈》을 《우리말본》의 첫째 매로 엮었음
    - ✓ 우리나라의 현대적 음성학의 처음이라 할 수 있음

첫째 가름	음성 기관의 구조와 작용
둘째 가름	낱소리
셋째 가름	이은소리

### 첫째 가름

### 음성 기관의 구조와 작용

- ▷ 음성기관을 숨쉬는 데, 소리내는 데, 소리 고르는 데로 나누고, 각 부분에 대하여 그 생김새와 작용을 설명

### 둘째 가름

### 낱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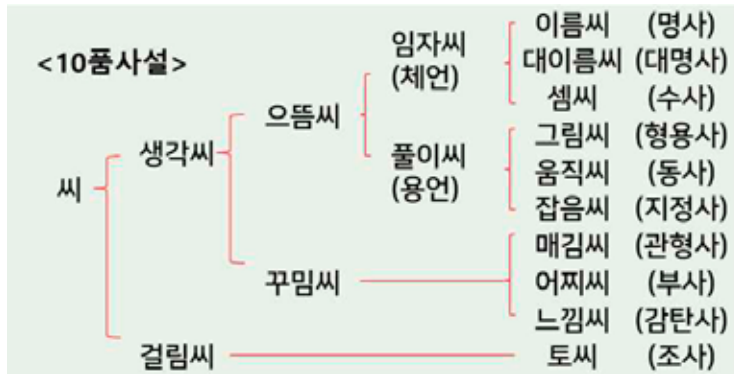
- ▷ 소리를 '①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 ② 입소리와 콧소리, ③ 흘소리와 달소리, ④ 흘소리와 겹소리, ⑤ 숨편소리와 숨안편소리'로 나눔
- ▷ 흘소리와 달소리에 대해서는 더 상세한 분류와 각 소리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음

### 셋째 가름

### 이은소리

- ▷ 소리가 서로 이어져 말을 이루는 이은소리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 길이·힘·가락·달라짐에 대하여 풀이
- ✓ 소리같은 주시경, 이극로, 정열모의 음성 연구를 발판으로 삼되, 피에토로(W. Viëtor), 예스페르센(Jespersen), 오구라 신페이 등의 연구 결과를 참고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최현배는 고유어 용어를 선택하되, 대중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바꾸어 사용함
  - ▷ 소리청, 힘살 → 목청, 힘줄
- 씨갈
  - ✓ 씨갈은 최현배의 문법 이론이 집약된 부문
  - ✓ 어미류는 단어의 일부분으로 처리하고 조사만 단어로 처리
    - 이른바 제2유형의 문법 유형 제시
  - ✓ 특히 그는 조사가 어미와 다른 자족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다각도로 증명하였음
  - ✓ 지정사를 독립시켜 동사와 형용사와 함께 용언의 한 가지로 본 것 또한 큰 특징으로 볼 수 있음
  - ✓ '씨'라는 말은 주시경이 쓰기 시작한 말로 낱말을 가리킴
  - ✓ '씨갈'은 낱말의 성질과 그 운용을 다루는 부분임

- ✓ 주시경은 '씨'를 분석적으로 규정하였으나, 《우리말본》은 종합적으로 고쳐, 그 뒤의 낱말 규정의 기초가 되었음
- ✓ 씨는 꼴(형태)과 구실(기능), 뜻에 따라 구분됨



- ✓ 주시경 체계에서는 '붓다, 가다' 따위의 풀이씨는 두 씨로 풀이함
- ✓ 《우리말본》에서는 자립성의 원리에 따라 이 두 가지를 하나의 낱말로 보게 됨
- ✓ 그 결과 풀이씨는 줄기를 중심으로 하여 그 씨끝을 바꾸게 되는 것으로 설명됨  
→ 씨끝바꿈((용언의) 활용)
- ✓ 풀이씨의 또 한 가지 특색은 잡음씨를 한 품사로 내세웠다는 점임
- ✓ 토씨는 자립성이 없지만 씨의 하나로 보고 있음
- ✓ 최현배는 토씨를 독립된 낱말로 보는 이유를 상세히 논증하고 있음
- ✓ 그 뒤 학교문법 등에서 토씨를 씨로 보고 있음
- ✓ 이에 대하여 토씨를 씨끝으로 보는 의견도 한편에서 대두되고 있음
- ✓ 이 책의 가장 큰 특색은 풀이씨의 끝바꿈임
- ✓ 풀이씨는 하나의 줄기에 말본상의 뜻을 나타내는 씨끝이 여럿 붙어서 그 꼴이 바뀌는데 이것이 끝바꿈임
- ✓ 끝바꿈꼴의 체계는
  - ▷ 마침법- 베풀꼴·물음꼴·시킴꼴·피임꼴
  - ▷ 감목법 - 어찌꼴·매김꼴·이름꼴
  - ▷ 이음법 - 매는꼴·놓는꼴·벌림꼴

- ✓ 말본상의 뜻을 가진 줄기와 씨끝과의 사이에 또 다른 형태소가 끼어드는 경우 도움 줄기로 처리함

**예** ▪ '먹히다, 가시다, 보았다' 의 '-히, -시, -았'

- ✓ 풀이씨의 때매김법
  - ▷ 움직씨, 그림씨, 잡음씨의 경우가 약간 다름
  - ▷ 움직씨는 이적(현재)·지난적(과거)·올적(미래) 3가지 때를 설정
  - ▷ 여기에 각각 으뜸 때, 끝남 때, 나아감 때, 나아가기 끝남 때의 때매김법이 있어 모두 12가지의 때매김법이되는데, 이 때매김법은 각각 도로 생각이 겹치게 되어 모두 24가지가 됨
- 월갈
  - ✓ 월갈은 문장론 또는 통사론에 해당함
  - ✓ 월갈의 구성
    - ▷ 첫째 가름 : 월갈 및 월의 개념 설명
    - ▷ 둘째 가름 : 문장의 구성성분인 낱말과 이은말과 마디에 대하여 언급
    - ▷ 셋째 가름 : 월의 조각, 위의 성분들이 월에서 가지는 기능에 대하여 설명함
      - ◇ 으뜸조각 : 임자말·풀이말·부림말·기움말
      - ◇ 딸림조각 : 꾸밈말
      - ◇ 홀로조각 : 홀로말
    - ▷ 넷째 가름 : 월의 조각의 서로 맞음
      - ◇ 문장 성분의 상응관계를 다루고 있음
      - ◇ 성분의 순서, 높임말의 호응, 어찌말과 풀이말의 호응 등 설명
    - ▷ 다섯째 가름 : 월의 갈래
      - ◇ 홀월 : 임자말과 풀이말의 관계가 한 월에서 한 번만 성립
      - ◇ 겹월 : 임자말과 풀이말의 관계가 한 월에서 둘 이상 성립, 가진 월, 벌린 월, 이은 월
    - ▷ 여섯째 가름 : 부록의 성격, 구두점의 사용에 대해 언급
  - ✓ 월갈은 씨갈에 비해 분량이 1/4에도 못 미칠 정도로 적음

- ✓ 당시의 지배적인 문법 모형이었던 품사론 중심의 문법을 지향하였기 때문(고영근 2010: 225)
- ✓ 씨갈의 상당 부분은 통사론의 영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내용
- ✓ 현대의 텍스트과학(텍스트언어학)의 단위로 설정되는 '이야기, 텍스트'는 글월갈(수사학)의 단위로 보고 문법의 영역에서 제외하였음
- 《우리말본》은 씨가름에서 월가름에 이르기까지 옛 설명을 그대로 쓴 것이 거의 없다고 할 만큼 새로운 체계를 이루며 국어에 대한 연구를 집대성한 저서임
- 일제 때 이루어진 국어학의 업적 중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국어학사상 그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음
- 초판 이후 몇 차례 개정판이 나왔는데, 총론과 음성학은 변화가 크지 않으며 품사론에서는 어법에서 변화가 많음
- 초판에 없던 '우' 변칙활용이 개정판에 도입되었고, 합성어 형성에 나타나는 음운현상이 많이 추가되었으며, 관형사의 체계와 내용이 많이 바뀌었음
- 최종판은 최현배가 작고한 이후인 1971년에 나온
- 여기서 큰 변화는 보조적 연결어미 '-고/어' 아래 붙는 존재사 '있다'를 이전 판에서는 보조동사로 보았는데, 최종판에서는 보조형용사로 보았다는 점임
- 《우리말본》은 선대 연구자들의 관점에서 벗어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론적 체계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됨
- 한편 문제로 지적되는 지점도 있음
  - ✓ 조사와 어미가 별도의 범주를 형성하는 것인지 의심이 됨
  - ✓ 한국어 시제를 영어의 시제 체계에 맞춰 현실언어와 거리가 먼 '들히다, 보히다' 같은 형태를 세웠음
  - ✓ 연결어미 다음에 쉼표를 찍음
  - ✓ 부사형 어미 '-게'를 형용사에 붙는 경우에 한하여 부사어로 처리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본용언과 합하여 합성 서술어가 되는 것으로 처리하였음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우리말본)§고영근(2010), 《민족어학의 건설과 발전》, 제이앤씨.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GetImage?t=origin&id=604c3328-f69f-4a41-a84b-38a79777d595&w=878&h=582>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GetImage?t=origin&id=49cfef2f-a29a-4202-955a-b6c81780a3d1&w=878&h=582>

## 5차시 최현배의 사상과 문법관

### 학습 목표

- 최현배의 사상과 문법을 분석할 수 있다.

#### 01. 최현배의 사상과 문법관

- 《조선민족갱생의 도》
  - 《조선민족갱생의 도》는 최현배가 일제의 압제 하에서 민족자각의 정신을 깨우쳐 우리 민족의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지은 책임
  - 1926년 《동아일보》에 66회에 걸쳐 연재한 내용을 1930년 단행본으로 간행하였음
  - 원래 저자가 10년 동안의 일본 유학을 마무리하던 시절인 1925년에 집필한 것으로, 교육학 방면에는 저자가 공개한 최초의 업적에 해당됨
  - 제1장 민족적 질병의 진찰, 제2장 민족적 쇠약증의 원인, 제3장 민족적 갱생의 원리, 제4장 민족적 갱생의 노력 등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장
    - ✓ 민족이 처한 사회현실을 분석해, 의지박약, 용기 부족, 활동력 결핍, 의리심, 저축심 부족, 성질 음울, 신념 부족, 자존심 부족, 도덕성 타락, 정치·경제적 파멸 등 10가지를 민족의 병폐로 꼽음
  - 제2장
    - ✓ 이와 같은 사회현실의 인과적 원인을 천착(穿鑿)해서, 조선조 문약정치, 조선 유교의 교조성, 자각 없는 교육, 한자의 해독, 양반계급의 횡포, 번문욕례(繁文縟禮), 일상생활의 비효율, 조혼의 악습, 나이 자랑, 미신의 성행 등 역시 10가지를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음
  - 제3장
    - ✓ 민족적 생활의 현실에 대해서 민족적 생활의 이상을 추구, 확립하려 했음
    - ✓ 우리 민족갱생의 원리로 첫째 민족적 생기를 진작하고, 둘째 민족적 이상을 수립하

며, 셋째 민족의 시대적 이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음

- ✓ 나아가 그것을 실현하는 데 우리 민족의 특질을 구명, 민족성이 우수함을 의(意)·정(情)·지(知)의 세 가지 면에서 사실적으로 논증하였음
- ✓ 다음으로 민족갱생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제4장

- ✓ 민족갱생의 노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교육의 정신 함양, 계몽운동 전개, 체육 장려, 도덕 경장, 경제 진흥, 생활방식 개선, 민족문화 발양 등을 들고 있음

- 이 책에 일관된 정신은 ‘민족 사랑’이었으며, 이러한 정신은 광복 이후에 《나라 사랑의 길》(1958)과 《나라 건지는 교육》(1963)으로 확대, 발전되었음

● 최현배의 문법관

- 언어 의식과 실용성을 중시한 최현배였지만, 일부 문법 현상을 기술함에 있어서는 언어 현실보다는 규범적 원칙을 강조함
- 이는 언어의 현실보다 언어의 보편적 체계에 따라 우리말을 설명하려 했던 근대 초기 문법가들의 태도를 연상시킴

“사람과 모든 사물의 움직임은 다 시간 가운데서 생기는 것이요, 그 움직임을 말로써 나타내는 사람 그것도 또한 시간상의 존재자이다. 그러므로, 그 말(월)에는 반드시 때 매김[時制]이 있을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조선말은 종래로 때매김에 관하여 비교적 확실하지 못한 감이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말에 때가 없는 때문이 아니요 어법적으로 우리말의 때매김을 연구 정리하여 법칙을 명료하게 하며, 그 사용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때문이다. 이제 내가 여기에서 특별히 한 목을 베풀어서 움직임의 때매김을 연구하는 것은 그 뜻이 여기에 있느니라.”

- 이러한 태도는 시제뿐만 아니라 피동법에 대한 설명에서도 동일함
- 이는 문법학이 언어 현상의 기술에 그치지 않고 언어를 완전한 것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관점을 반영한 것임

“우리말의 본을 풀이함에 있어서 가장 그 본이 정연하지 못한 것은 움직씨의 입음법 [被動法]과 때매김법이다. 이는 곧 입음법과 때매김법이 우리말에서 아직 잘 발달되지 못한 것을 보임이다. (중략) 그 열 두가지 때매김은 다만 어법적논리에 의하여 정돈한 것이요, 그 각각의 말 모양이 실지로 다 쓰이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쓰이고, 어떤 것은 쓰이지 아니하여 일정한 준칙이 없다. 그러므로 다만 오늘날의 말씨로서만 그 법을 삼는다면 그것이 넘어도 불완전 부정제하여서 족히 법이 있다 할 것이 못 된다. (중략) 그래서 일변에서는 실지의 사용을 보고, 타변에서는 법적으로 실지 사용의 가능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한 것이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제를 12가지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예를 제시함
- 또한 피동과 사동을 구분하기 위해 피동법의 도움줄기로 ‘-기-, -히-’만을 인정하고 ‘놓히다, 쌓히다, 짚히다’ 등의 형태를 규범형으로 제시함
- 이러한 문법관은 언어를 건설한다는 관점으로, 실천적 국어학 연구의 극단적 경향이라 할 수 있음
- 주시경 또한 언어를 건설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문법 연구를 통해 우리말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음
- 최현배가 가진 궁극적인 목표는 교육을 통한 민족 개조였음
- 그가 일본 유학 시절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페스탈로치의 규범적 교육학에 매료됐었다는 사실은 그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잘 보여줌
- 최현배는 유학 당시 교육학을 전공했으며, 학위 논문의 제목은 <페스탈로치의 교육학>이었음
- 그리고 1926년 교토제국대학의 대학원 과정 수업을 1년간 다니면서 쓴 것이 바로 《조선민족갱생의 도》였음
- 그러나 최현배는 귀국 후 교육 운동보다 어문 운동에 주력했음

“왜정의 동화 정책, 식민지 교육 방침에 굴레 씌워진 당시의 우리의 교육은 도저히 나의 교육 이상의 실현의 여지가 없음을 간파하게 나를 강요하였다. 그리하여 나의 연구심은 교육학의 원리, 방법 등에 쏠릴 수가 없었다. 만세 불멸의 교육 원리도 왜정의 횡포한 칼 앞에는 아무 실행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중략) 그러나 나의 연구의 노력은 나의 학교 교육에서는 부전공의 지위에 있던 우리말 우리글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조선말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이 나의 주장된 학구적 사업이었다.”

- 최현배<나의 걸어온 학문의 길> 중

- 최현배는 식민지 지식인의 한계와 민족어의 위기 상황을 절감하며 우리말 연구와 운동에 주력함
- 교육을 통해 민족을 개조한다는 목표가 민족어 운동을 통한 민족 개조 운동으로 구체화된 것임
- 주시경의 민족 사상을 내면화한 최현배는 민족을 절대적 대상으로 여겼지만, 그 시대의 민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음
- 이에 민족의 갱생, 민족 개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됨
- 그의 어문관과 어문 운동 논리도 이와 같음
  - ✓ 민족어의 갱생 민족어의 개조
  - ✓ 원리와 원칙에 충실한 어문 정리
  - ✓ 조선어사전 완성, 《한글》(1942)을 저술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조선 민족 갱생의 도)

## 6차시 최현배의 역사 연구와 어문 정책

### 학습 목표

- 최현배의 역사 연구와 어문 정책에 대해 논할 수 있다.

#### 01. 최현배의 역사 연구와 어문 정책

- 《한글갈》



- 최현배가 훈민정음의 이론적 문제와 역사적 문제에 관해 논술하여 1940년에 간행한 학술서
- 훈민정음의 원리론, 훈민정음사, 훈민정음연구사, 문자생활사 등
- 가히 훈민정음에 관한 전 영역을 망라한 역저
- 국어사·국어학사·서지학·음운론의 여러 분야에 걸쳐 참고하지 않으면 안 될 귀중한 저서의 하나로 평가됨
- 일제강점기에 우리의 언어·문자를 지키고자 노력한 점을 보여준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음
- 일명 《정음학(正音學)》이라고도 하는데, 1940년 정음사(正音社)에서 초판을 간행하여

현재까지 여러 차례 판을 거듭하고 있으며, 1961년에 개정판을 냄

- 저술 동기

“훈민정음에 관한 일체의 역사적 문제와 한글에 관한 일체의 이론적 문제를 크고 작고를 망라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논구하여 그 숨은 것을 드러내며, 그 어두운 것을 밝히며, 그 어지러운 것을 간추림으로써 정연한 체계의 한글갈을 세워, 위로는 신경준(申景濬)·유희(柳僖)의 유업을 잇고, 아래로는 주시경(周時經) 스승의 가르침의 유업을 이루는 데 있다.”

- 역사편과 이론편의 두 편으로 나누어져 있음

- 역사편

- ✓ 훈민정음의 본문과 해례본을 상세하게 풀이
- ✓ 훈민정음 사용의 역사적 발달과 훈민정음에 관한 연구 업적을 시대별로 나누어 상세하게 기술, 비판

- 이론편

- ✓ 각 글자의 음가(音價)와 운용(運用) 및 글자의 이름을 고찰
- ✓ 제자(制字)의 원리, 표기법, 없어진 글자에 대한 상고, 자수와 차례의 변천, 그리고 ‘·, △, ○, ◯’ 및 순경음에 대한 상고, 병서론(並書論)과 기원설(起源說)의 여러 장으로 나누어 서술

- 〈언어학상으로 본 조선어〉

- 1927년 3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글》에 연재된 논문
- 조선어의 유형론과 계통론에 관한 글
- 언어학계의 연구 성과를 정리해 소개한 것이지만, 당시 학계의 관심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주목됨
- 조선어를 우랄알타이어족 중 ‘만주어족’에 분류하고 있으며, 만주어족은 통구스어, 만주어, 조선어, 일본어, 아이누어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했음
- 김윤경의 《조선문자급어학사》(1938)에서도 계통론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조선어를 통구스어로 귀속시키면서 통구스어에 일본어와 만주어를 포함시켰음
- 조선어와 일본어를 동계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을 밝혔음
- 권승욱은 신무라이즈루의《동방언어사총고》를 일부 번역하여 《한글》 제73호(1939)에 ‘언

어의 비교 연구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게재했음

- 게재된 부분은 비교언어학의 방법론과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일본어와 아시아 제 민족어의 관련성을 논증하는 내용임
- 이외에 언어 유형론으로는 《정음》 제14호(1936)에 실린 유승호의 언어의 형태, 《한글》 제63호(1939)에 실린 이극로의 언어의 형태적 분류가 있음
- 이러한 논의를 통해 언어의 계통 및 유형에 대한 문제가 당시 조선어학계의 주요 논의 주제 중 하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당시의 언어학적 관심이 역사비교언어학의 방법론에 집중된 데에서 비롯된 것임
- 전체 언어들과의 비교를 통해 조선어의 특징을 밝히는 일이 모든 조선어학자의 관심을 끌 만한 주제였다는 것도 계통 논의가 시작된 이유

● 최현배의 어문 정책

- 최현배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수감되었다가 해방으로 출옥하자마자 서울로 돌아와 조선어학회를 재건했음
- 이후 미군정청에서 교과서 발간을 책임지던 학무국편수 과장으로 취임하였음
- 여기에서 조선교육심의회 교과서 분과의 책임을 맡아 교과서에 한글 가로쓰기가 채택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음
- 최현배는 국어 교과서의 편찬을 조선어학회에 일임하였고, 공민 교과서(오늘날의 도덕 교과서) 역시 조선어학회가 편찬하기도 하였음
- 그는 한글 가로쓰기와 가로풀어쓰기, 한자 폐지를 주장하였음
  - ✓ 가로쓰기 : 글을 우측 가로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
  - ✓ 가로풀어쓰기 : 영어의 알파벳과 같이 ‘한글’을 ‘ㅎㅏㄴ ㄱㅡㄹ’로 풀어 사용하는 것을 의미
- 다수의 학자들은 한글 가로쓰기와 가로풀어쓰기를 모두 반대하였음
- 논의 끝에 가로 풀어쓰기는 허용되지 않았고, 가로쓰기만 사용하기로 결정되었음
- 반면, 한자 폐지는 수용되어 교육과 관공서 문서에 한글이 기본 언어로 채택됨
- 최현배는 한글로 된 제헌헌법 제정을 건의하고, 한글 전용법이 공포되는 데 앞장섰음

● 실천적 이상주의 사회사상가 최현배

“외솔(최현배)은 국어학자이기 전에 한글학자였고 한글학자이기 전에 사회사상가였다. 개화기와 일제강점기에 민족어문을 연구한 사람들은 모두 이런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외솔을 비롯한 당시의 한글학자들이 희구하였던 것은 난마와 같이 흐트러진 민족어문, 다시 말하면 우리말과 우리글을 정리하여 민족 모두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맞춤법과 공통 표준어, 궁극적으로는 민족 전체가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사전 편찬을 성취하는 일이었다. 음성·음운, 문법, 방언, 옛말을 연구하는 것이 요즈음처럼 음운론, 문법론, 방언론, 언어사(국어사)의 체계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 어문을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민족어문 연구의 동기를 부여해 준 사상은 외솔의 경우, 실천적 이상주의였다. 학계에서는 외솔의 주저가 《우리말본》과 《한글》이라고 하지만 외솔 자신은 《한글가로글씨독본》이 대표적 저술이라고 술회한 바 있다. 외솔이 청소년 시절부터 만년에 이르기까지 지니고 있었던 것은, 자모문자이면서도 그 운용에 있어서는 음절문자의 기능을 하는 한글을 자모문자답게 가공하는 문제였다. 그런 점에서 위의 책을 자신의 대표적 저술이라고 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현재는 외솔의 가로쓰기 사상이 그들에 가려 있으나 문자환경이 바뀌면 외솔의문자 개혁안이 다시 햇볕을 볼 날이 있을지 모르겠다.”

“외솔은 청년기에 세운 민족어문의 정리와 발전을 위한 구도(構圖)를 하나하나 성취해 왔으며 만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이론을 단계별로 거의 완벽한 경지에까지 이르도록 하였다. 이런 점에서 외솔은 당대의 누구보다도 복된 일생을 누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청년기에 아무리 원대한 포부를 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천과정에서는 좌절을 겪기 마련인데 외솔은 초지일관(初志一貫) 하여 자신의 이론을 완성하여 현실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헌하였다. 이는 외솔이 정상적인 현대교육을 받은 것과 관련시킬 수 있지만 일찍부터 '실천적 이상주의'의 사상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었던 데다가 천성이 부지런하고 고집이 강하다는 성격적 측면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앞에서 더러 본 바와 같이 외솔은 자신의 학설이나 이론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스승, 선배, 동료, 후배를 가리지 않고 준엄한 비판의 화살을 당겼다. 한 사람의 학자가 되는 길에는 첫째는 같은 주제를 부지런히 계속 생각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단체의 일원이 되어야 하며, 셋째로는 자신과 상충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누구를 묻지 않고 토론과 비판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외솔의 학문역정을 통하여 새삼스럽게 느낀다. 학문뿐만 아니라 어떠한 직종에 종사하더라도 외솔이 보여 준 세 요소는 우리가 귀감으로 삼아야 할 교훈이라는 것을 끝으로 덧붙여 둔다.”

〈출처: 고영근(2010), 《민족어학의 건설과 발전》, 제이앤씨, 240-241.〉

【참고문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글갈)
- 고영근(2010), 《민족어학의 건설과 발전》, 제이앤씨.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GetImage?t=origin&id=c99ce898-ae6d-46e8-90f3-5ad98715faf8&w=878&h=582>,  
<http://encykorea.aks.ac.kr/Contents/GetImage?t=origin&id=ba464701-8d4f-4f4b-be15-cb27ec42c853&w=878&h=582>